

# 비만 오면...충장으로 곳곳 '물지뢰 테러'

보도블록 50여곳 깨지고 어긋나 잘못 밟으면 낭패

보수 비용 매년 1억원 넘어... 10년째 부실시공 논란

차량통행 탓... 동구청은 방치

■충장로 파손 보도블록 위치

지난 주말 광주시 동구 충장로에 쇼핑 나온 주부 김민주(31·광주시 광산구)씨는 불쾌한 일을 겪었다.

파손된 보도블록을 밟는 바람에 블록 사이에 고여있던 물이 튀어올라 신발과 바지가 젖은 것이다. 김씨는 "온라인 쇼핑만 하다가 모처럼 충장로 구경도 할 겸 쇼핑 나왔는데 옷이 젖어 그냥 집으로 가야할 것 같다"면서 "다시는 오고 싶지 않다"고 푸념했다.

'문화도시 광주'의 대표 쇼핑 중심지이자 변화가로 꼽히는 충장로 곳곳에 파손된 보도블록이 많아 쇼핑객들이 '물지뢰 테러'에 시달리고 있다.

특히 최근 장맛비가 깨진 보도블록 사이에 고이면서 밟으면 물이 튀고, 발이 걸려 넘어지는 이른바 '물지뢰' 수습개가 있지만, 관할 동구청은 예산·인력 부족 등을 이유로 방치하고 있다.

일각에서는 부실시공 의혹 등을 제기하며 재시공 하는 등 근본 대책이 마련돼야 한다고 지적한다.

16일 광주시와 동구 등에 따르면 지난 2007년 '충장로 특화의 거리 조성사업'으로 예산 20억원을 들여 충장로 1~3가 1km 구간에 화강석 보도블록(가로·세로 5×5cm, 10×20cm, 20×20cm 등) 조성 공사를 했다.

하지만 깨지고 어긋난 보도블록이 방치되면서 '명품거리 조성'이라는 사업 취지마저 무색해 하고 있다. 이에 따라 매년 보도블록 보수 비용으로 1억원씩 지출되고 있지만, 이마저도 '땀집 보수'에 그치고 있다.

실제 16일 방문한 충장로의 경우 유동인구가 많은 무등빌딩~콜박스 사거리~광주세무서, 충장치안센터~충장로 1가 입구 등에서 파손된 보도블록만 54곳을 확인할 수 있었다.

광주우체국 앞 사거리에서는 바닥면과 보도블록을 고정하는 시멘트가 떨어져 보



도블록이 밟을 때마다 들썩였다. 보행자가 주변보다 더 튀어나온 블록을 밟자 옆으로 물이 튀는가 하면, 여성의 하이힐 뒷굽 등이 걸리거나 끼는 경우도 있었다.

충장서림 앞 거리에 있는 가로·세로 2m 규모 보도블록 수습개는 훼손 정도가 심각해 보행자들이 낮낮이가 다른 블록에 발이 걸리는 사례도 많았다.

콜박스 사거리 인근 보도블록도 상태는 마찬가지. 다른 곳과 달리 붉은색 블록으로 채워진 이곳은 바닥이 움푹 꺼져 지면과 10cm 이상 차이를 보였다. 또 2개 이상 블록이 빠진 채 방치된 곳도 있었다.

특히 수시 보수공사를 진행하고 있는데도, 보도블록 파손이 끊임없이 되풀이되면서 '부실시공' 의혹도 제기되고 있다. 시민들은 "전국적으로도 지역대표 쇼핑거리에서 충장로와 같은 보도블록 훼손 사례를 찾아보기 힘들다"고 입을 모은다.

동구는 보도블록 파손의 원인으로 공사 차량 통행을 지목하고 있지만 실책이 떨어진다. 도로교통법상 충장로는 차가 들어오면 안 되는 지역(밤 11~오전 9시까지 2미만 상품운반차량 제외)이기 때문이다.

차량 통행을 감안하지 않고 두께 5cm 보행자용 판석을 설치한 것 자체가 문제라는 분석도 나온다. 출입구가 충장로와 연결되는 하나은행 광주지점, 무등맨션 주차장 앞 등은 차량이 수시로 다니기 때문에 10~20cm 두께의 차량 통행용 판석을 깔아야 하지만, 일괄적으로 보행자용 블록



“알아서 피해주세요” 16일 오후 광주시 동구 충장로에 화강석 보도블록이 깨진 채 방치되고 있다. 지난 2007년 '충장로 특화의 거리 조성사업'으로 20억원을 들여 설치한 화강석 보도블록은 파손이 끊이지 않으면서 부실공사 의혹 등이 제기되고 있다.

을 설치했다는 것이다.

동구청 관계자는 “상가 공사에 쓰이는 지게차, 크레인, 소형 굴삭기 등이 가장 문제”라며 “대형 공사차량이 같은 장소에서

반복해 움직이며 작업을 하니 블록이 버틸 수 없다. 예산도 예산이지만 보수 인력 1명으로는 한계가 있다”고 설명했다.

## 영화 '택시운전사' 광주 시사회 5·18 유가족 등과 함께 달린다

영화 '군함도' 24일 광주 시사회  
광주 근로정신대시민모임 초청



영화 '택시운전사'

5·18광주민주화운동을 그린 영화 '택시운전사'와 일제 강제징용을 다룬 영화 '군함도'가 정식 개봉에 앞서 각각 5·18 유가족과 광주지역 강제동원 피해자에게 첫 선보인다.

5·18기념재단과 CJ CGV에 따르면 17일 오후 7시 CGV광주상무점에서 영화 '택시운전사' 시사회가 5·18 유가족 등 150명을 대상으로 열린다.

시사회를 주관하는 CGV광주상무점측은 “광주에서 영화 '택시운전사'를 처음 선보이는 만큼 5·18기념재단과 5월 3단체(유족회·부상자회·구속부상자회), 오월어머니집, 5·18민주화운동기록관, 광주드라마센터 등을 우선 초청했다”고 밝혔다. 제작·출연자는 행사에 불참한다.

5·18기념재단 등은 자문, 자료제공 등을 통해 직·간접적으로 영화 제작을 도운 것으로 알려졌다. 5·18 참상을 전 세계에 알린 고(故) 워르겐 힌츠펜터를 소재로 한 영화 '택시운전사'는 1980년 5월 서울의 한 택시 운전사가 '큰 돈을 준다는 말'에 독일 기사를 태우고 광주로 가는 이야기를 담았다.

영화 '군함도' 시사회는 오는 24일 오후 7시 CGV터미널점에서 '근로정신대 할머니와 함께하는 시민모임'(이하 시민모임) 회원 150명을 대상으로 진행된

다. 군함도는 일제 강점기 강제 징용 역사를 상징하는 섬이다.

광주 시사회는 “근로정신대 피해 할머니에게 영화를 먼저 보여드려야 한다”는 시민모임측의 요청을 영화 배급사가 받아들여 성사됐다.

시민모임은 일본 미쓰비시 중공업을 상대로 강제 징용 손해배상 소송을 이어 오고 있으며 지난 2015년 군함도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 등재 때 적극적인 반대 운동을 펼치기도 했다. 군함도는 강제 노역 인정과 희생자 추모 등을 해야한다는 조건부 등재였지만 일본 정부는 현재까지 이행하고 있지 않아 반발을 사고 있다.

시사회에는 강제동원 피해자 양금덕(86) 할머니가 참석해 소감과 인사말을 전할 예정이다. 한편, 오는 26일 개봉하는 영화 '군함도'는 섬 모양이 군함같이 생겨 '군함도'로 불린 일본 '하시마' 해저탄광에서 조선 강제징용 노동자들의 탈출하는 과정을 다뤘다.

/김용희기자 kimyh@kwangju.co.kr

## 치매 노인, 아내와 말다툼 하다 흥기 휘둘러

광주 동부경찰은 “흥기로 아내를 다치게 한 혐의(특수상해)로 A(71)씨를 불구속 조사를 하고 있다”고 16일 밝혔다.

A씨는 지난 14일 오후 3시10분께 광주시 동구 자택에서 집 안에 있던 흥기를 휘둘러 아내 B(73)씨에게 상처를 입힌 혐의를 받고 있다. B씨는 이마와 팔을 다쳐 입원 치료받고 있으며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조사 결과 치매를 앓고 있던 A씨는 당시 아내와 함께 있던 중 말다툼을 벌이다 흥기를 잡지 못해 B씨에게 상처를 입힌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부부를 떼 놓기 위해 A씨를 아들집으로 보낸 상태이며 정확한 경위를 조사 중이다.

/김용희기자 kimyh@kwangju.co.kr

## 웃걸이 낚시대로 편의점 금고서 250만원 꺼내 '꿀꺽'



○~인터넷 도박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자신이 일하던 편의점 금고에서 웃걸이를 낚시대처럼 만들어 돈

모자를 꺼내 40대가 경찰서행. ○~16일 광주 북부경찰에 따르면 김모(46)씨는 지난 2일 새벽 1시10분께 광주시 북구 용봉동의 한 편의점에서 철재 웃걸이를 1m 길이로 편 다음 끝부분에 양면테이프를 감아 금고(높이 70cm×가로 50cm×세로 50cm)앞 쪽으로 뚫려있

는 현금 투입구(가로 20cm×세로 3cm)에 집어넣고 낚시를 하듯 총 250만원이 들어있는 비닐봉투 3개를 꺼냈다는 것.

○~당시 금고 안에는 고대 근무자 별로 매출금을 구분해 넣어둔 비닐봉투 3개가 들어있었는데 김씨는 '편의점에서 10여 일간 근무하며 주말에는 돈을 은행에 입금하지 않고 금고에 보관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이같은 범행을 저질렀다”고 진술.

/김용희기자 kimyh@kwangju.co.kr

## '뇌물수수' 김철주 무안군수 징역 3년6개월 선고

공무원 인사청탁 뇌물을 챙기고, 관급 공사 비리를 저지른 혐의로 구속 기소된 김철주 무안군수에 대해 법원이 징역형을 선고했다.

광주지법 목포지원 형사2단독 장찬수 판사는 지난 14일 뇌물수수 혐의 등으로 기소된 김 군수에 대해 징역 3년 6개월에 벌금 1억원, 추징금 45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선출직 군수로, 청렴성이 요구됨에도 권한을 남용해 범죄를 저질렀고

뇌물 액수가 적지 않다”며 “다만 범행을 자백·반성하고 있고 동종전과가 없는 점, 건강이 좋지 않은 점 등을 고려했다”고 판시했다.

김 군수는 지난 2012년 6월 군청 공무원의 인사청탁 목적으로 측근을 통해 부하 공무원으로부터 2000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지적 재조사 업무 편의를 봐주는 대가로 입자로부터 2500만원을 챙긴 혐의도 추가됐다. /박진표기자 lucky@

## 병역 면제 받으려 온 몸 문신 20대 징역형

광주지법 형사9단독 김강산 판사는 “병역 면제를 목적으로 문신한 혐의(병역법 위반)로 불구속 기소된 김모(22)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16일 밝혔다.

김 판사는 “피고인은 전신에 문신을 하면 현역병 입영 대상에서 제외되는 사실을 알고 있었고, 징병검사에 앞서 추가로 문신했다. 병역의무를 기피하고 감면받을 목적에 대한 미필적 고의가 있었음이 인정

된다”고 판시했다.

그러나 “병역의무를 기피하거나 감면받을 목적으로 문신 시술을 시작한 것은 아니고, 병역의무가 완전히 면제된 것은 아닌 점 등을 참작했다”고 밝혔다.

김씨는 지난해 징병검사에 앞서 온몸에 고도의 문신 시술을 추가로 하고 4급 판정을 받아 사회복무요원 소집대상으로 병역 처분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박진표기자 lucky@kwangju.co.kr

# “모텔 급매”

- 전남 구례군 산동면 관산리 732-1번지, 지리산 온천지구내, 호텔수준
- 대지 573평 건물 685평, 지하1층, 지상 4층, 객실 58개, 전체 리모델링, 7월20일 오픈예정
- 연수원, 수영장, 요양원 등 기타시설 가능, 케이블카 운영시 대박!
- 시세/감정가 - 20억, 매매 - 17억 (용자 8억포함)
- 주인직매, H. 010-3605-5000

산수유/벚꽃/매화축제, 여름휴가, 등산객 등 성수기철(5개월)영업으로 순수익 3억 가능!



# 무인텔

엘도라도 리조트 콘도

- 전남 화순군 도곡면 천암리 748번지 도곡온천지구 내 숙박시설
- 대지 2980평, 건물 1055평(3동), 객실 52개
- 리모델링후 연 순수익 3억 이상 가능
- 온천지구 내 “직업테마파크”등 600억 투자 예정
- 시세/감정가 - 60억
- 매매 - 42억
- 상담문의 H.010-6838-1230